

남원, 노인이 행복한 복지 실현

경로당 150개소에 식사 도우미 300명 배치 일자리 창출 기초연금 수급자 9천여명 목욕권 지급 등 노인복지 추진

남원시가 지역 어르신 모두가 행복한 도시 남원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한 발 빠른 노인복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는 올해 노인복지사업 예산 759억6100만원(남원시 총예산의 10%) 중 62%에 이르는 467억2300만 원을 상반기에 집행해 어르신들에게 보다 빠른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1만7700여 명에게 기초연금(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급해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했으며, 2830명(예산 78억6400만원)에게는 노인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적인 안정과 자긍심 고취를 도모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시비 7억7100 만원을 들여 경로당 150개소에 식사 도우미 300명을 배치해 어르신들에게 편의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노인요양시설입소 인권보호 강

화를 위한 '노인 인권지킴이' 활동을 확대했으며, 여가활동의 장인 경로당 운영비로 491개소에 13억300만원을 집행했다. 또한 시비 3500여만원으로 경로당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을 일괄 가입했으며, 독거노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고독사 등 노인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동절기 5개월간(1, 2, 3, 11, 12월) 두레사랑방 사업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활기찬 여가활동을 위해 에어컨(270개소) 등 각종 편의 시설을 확충했다.

명품 노인복지관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남원노인복지관 프로그램도 25개 영역, 52개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하고, 2020년 말 준공을 목표로 동북권 고층동에 제2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독거노인 1680명을 선정하여 매주 1회 방문, 2회 전화로 안부확인 및 건

강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폭염 기간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이 휴일도 없이 매일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신규시책으로 독거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안부영상으로 제작해 자녀들에게 전송하는 '영상통화'의 사랑과 행복을 싣고 서비스를 금년부터 추진해 보호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119와 응급관리요원에게 자동으로 신고되는 응급안전알림시스템을 설치하고,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 보행보조기지원 및 무료경로식당과 식사배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선7기 공약인 행복플러스 노인복지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만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9,000여 명에게 연 10만씩 노인 목욕권을 지급해 건강진전을 도모하고 있다.

김순복 노인복지 담당은 "앞으로도 보다 촘촘한 노인복지사업을 운영, 어르신 모두가 행복한 도시 남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강천산, 8월 1일 본격 야간개장

화려한 조명과 영상 콘텐츠로 시선 사로잡아

순창 강천산이 오는 8월 1일 본격 야간개장에 들어가며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강천산이 전국에서 연간 100만명이 찾는 정도로 단풍 명산으로 유명하지만 화려한 조명과 영상 콘텐츠로 다시 한 번 순창을 대표하는 야간 명소로 새롭게 탈바꿈할 전망이다. 군은 다음달 1일 본격 야간 개장과 함께 다채로운 행사로 관광객에게 신선한

재미를 선사할 계획이다.

개장날인 1일 오후 3시부터 강천산 1주차장에서 다양한 체험행사는 물론 특설무대에서는 하모니카와 댄스, 여성합창단, 버스킹 공연 등도 펼쳐진다.

총 3부로 진행될 이번 야간개장 행사는 1부 식전행사, 2부 황숙주 순창군수의 개장선언과 함께 퓨전국악공연단체인 나니래를 초청해 애절한 목

소리로 군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전망이다.

밤 하늘에 어둠이 짙게 드리워지는 밤 8시부터 '강천산 단월야행'인 야간산행에 들어간다. 야간산행은 강천산 입구부터 천우폭포까지 1.3km 구간까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강천산 단월야행을 주제로 준비한 야간산행의 가장 큰 재미는 순창군이 지난 2017년부터 산책로 주요지점마다 조성한 화려한 조명과 영상을 구경하는 데 있다.

최초의 국문소설인 실경산전을 모티브로 적통과 청룡, 도깨비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친근한 캐릭터로 이야기를 구성해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삼혈을 기울였다.

여기에 곳곳에 AR기술을 활용한 포토존은 적통과 청룡 등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만들어 아이들에게 새로운 추억을 선사할 전망이다.

개장 당일에는 입장객 전원에게 무료로 개방할 예정으로, 개장시간은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본격 개장과 함께 야간 개장은 11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만 운영에 들어간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 강천산이 오는 8월 1일 본격 야간개장에 들어가며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29일 순창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2층에서 관내 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2주 간에 걸쳐 진행될 '우리 영화 만들자' 영화캠프의 첫 강의를 진행했다.

여군동 감독, 청소년에게 영화인 꿈 키워준다

순창서 청소년 11명 대상 전문 교육 진행

여군동 영화감독이 영화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한다.

29일 순창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2층에서 관내 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2주간에 걸쳐 진행될 '우리 영화 만들자' 영화캠프의 첫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영화나 영상 등에 관심 있는 관내 청소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군이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황숙주 순창군수도 개강식에 참석해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했다. 황 군수는 "이번 캠프를 통해 여군동 감독님에게 여러분이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많은 걸 배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연극이나 일러스트, 웹툰 등 다양한 예술분야에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캠프는 29일 시작으로 다음달 17일까지 연출, 시나리오, 조명, 녹음 등 각 분야 전문감독을 초청해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는 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4시로, 제작 발표 및 상영회를 예고한 8월 17일까지 영화를 완성하기 위해 교육과 실습에 집중할 계획이다.

첫 날 여군동 감독의 영화연출과 시나리오 등에 대해 직접 교육을 진행한데 이어 조명분야 제창규 감독과 음향분야 전상준 감독, 편집분야 엄윤주 감독 등도 강사로 나선다. 여 감독은 학생들에게 "영화는 시나리오가 나오면 다 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여러분이 평소 생각하고 말하고 싶었던 것을 시나리오에 담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심 민 임실군수, 집중호우 뚫고 현장 속으로

덕치면 등 최대 268mm 기록적 폭우에 긴급 현장점검

심 민 임실군수가 주말을 반납한 채 집중호우 피해현장을 찾아 긴급점검에 나서는 등 강력한 호우피해 대책을 지시했다.

심 군수는 휴일인 27일~28일 지난 2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에 피해를 입은 현장 점검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행정력을 총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군에 따르면 26일부터 평균 102mm의 비가 내렸으며 특히 덕치면에는 시간당 7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등 최대 268mm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심 군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덕치면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작업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심 군수는 현장을 찾아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여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다행히 일부 주택이 침수되거나 농경지 피해 등이 일부 있었으나 우려할 만한 큰 피해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군은 일부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이 발생한 만큼 즉시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 식품접객업소 옥외가격표시 점검

임실군은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 대책을 위해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옥외 가격표시제 의무 업소에 대한 옥외 가격표시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선다.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 미리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음식점 외부에 실제 지불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는 것으로,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식품접객업자는 영업소 외부에도 최저지불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최근 옥외가격표시를 하지 않거나 손님을 끌기 위하여 싼 가격만 표시하는 등 법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임실군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하여 면적이 150㎡ 이상인 관내 식품접객업소 53개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영업장 청결관리 등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자 준수사항도 점검할 계획이다.

의뢰지원과 이준백 과장은 "식품접객업 옥외가격표시제 특별 점검으로 휴가철 바가지요금 등 물가안정대책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풍수해대비 주요사업장 확인

남원시가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이형우 안전경제건설 국장은 지난 23일부터 시의 주요사업인 풍천·송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 교동대로 개설공사, 새터 중로 개설공사, 옥포정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산지수해 복구공사,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공사 현장 등을 방문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남원시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의 진행상황과 추진상의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지역발전 위한 건설적인 대안들을 논의하는 등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사업에 적극 반영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형우 국장은 "사업 현장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